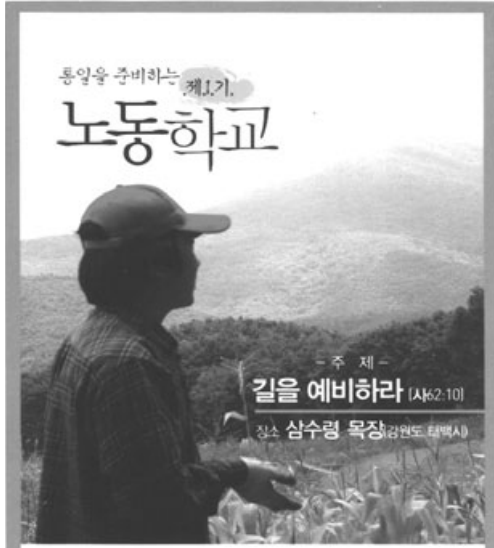


구역소개 4-8 “중강나들이”



4교구 18구역의 15명의 구역식구들은 지난 6월 24일 (토) 신화식 교구목사와 함께 홍천강에서 중강 나들이를 하였다. 비

교적 나이가 많은 구역식구들로 구성된 이 구역은 빨리 더워지고 식는 날씨 같지 않고, 온돌방 같은 따스한 정을 항상 나누고 있다.
모처럼만의 나들이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준비해간 여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강물을 가르며 모터보트의 스피드도 즐기며 신록의 숲 속 길을 산책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두 달 동안의 방학 기간도 교회에서 더 많은 교제를 갖기를 바라며 더 좋은 가을 학기 모임을 갖기를 약속했다.



제1기 통일을 준비하는 노동학교
1차 7월 10일(월)~14일(금) 청년/대학생
2차 7월 17일(월)~21일(금)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
3차 7월 24일(월)~28일(금) 일반인1
4차 7월 31일(월)~8월 4일(금) 청소년
5차 8월 7일(월)~11일(금) 영어권
6차 8월 14일(월)~18일(금) 일반인2
주최 삼수령 네번째강 계획 & 예수원
참가비 _ 15-17만원
문의 _ 033-553-3395

Mission **함줄함울**,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하늘을 나는 슈퍼맨입니다(X)”



하늘을 나른다는 말의 의미는 하늘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슈퍼맨을 말할 때는, ‘하늘을 나는’ 이라고 써야 합니다.
자동사 ‘날다’는 불규칙활용동사로, ‘나니, 나오, 나느’과 같이 변하므로, ‘날으는 슈퍼맨’이 아니라 ‘나는 슈퍼맨’이 맞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나는 슈퍼맨’이라고 하면 ‘나는 (I) 날아 다니는(flying) 슈퍼맨’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기사는 수원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의 성제훈박사의 이메일 자료에 기초, 교회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함줄함울

www.pcltv.org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권 _ 제 178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7월 2일

주님의교회 18주년 창립기념주일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으로...”



지난 주일인 6월 25일은 주님의교회 창립 18주년 기념일이였다. 에베에셀의 하나님은 주님의교회가 어느 장소에 서있던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은혜와 부흥을 지속시켜 주셨다.

“1988년 6월 26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여성청년교육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48명의 성도와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라고 시작된 문동학목사의 설교는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청소년의 시기를 넘어 성년의 시기



선출된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임직식이 있었다. 장로 2명, 안수집사 8명, 권사 8명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서약했다. 성도들 역시 이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 협력하여 사역할 것을 서약하며 기도했다.

(3면에서 계속)

2006 선교부흥회 2면

3일간 전문인 선교사의 강연으로 2006 선교부흥회가 열렸다.

청년부 여름사역 3면

인터뷰 / 영어사역팀 4면

4부예배, **오늘**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대합니다.

‘잘 쉬어야 잘 산다’ 다분히 역발상의 개념으로 “휴...”라는 큰주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삶과 쉼”에 대해서 나눈다.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안식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등록된 새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환영하는 시간도 준비하였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분들이 전도예배를 통하여 “오늘” 다시금 복음으로 거듭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도전받게 될 것이다.

인터뷰 / 영어사역팀 Jenny Barnes



Q: 본인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Can you introduce yourself for us?

A: 제 이름은 Jenny Barnes 이고 지난 2월에 피츠버그 주립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국민과 그 생활양식을 알고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너무도 신나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 했는데 이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Sure, My name is Jenny Barnes and I came to Korea this past February as an exchange student from Pittsburg State University in Kansas, I came here to learn about Korean

language and people and the Korean way of life. It has been so exciting. When I first embarked on this journey I wasn't quite certain what to expect in Korea. I was entering into a world that was completely different than anything I'd experienced in America.

Q: 이곳에 체류 중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What have you learned during your time here?

A: 저는 어떤 목표를 향해 애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제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한국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Living in Korea is teaching me many things. I am learning what it truly means to strive toward ones goal and even finding who I really am. The people that I have met in Korea have become a very important part of my life and it is because of these people that I like Korea so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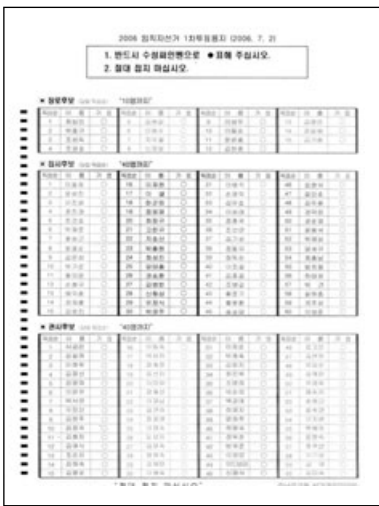
Q: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eople?

A: 한국인들은 참 친절환 것 같습니다. 주님의교

회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저를 한가죽처럼 맞이주시는 영어예배부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서울 주변의 사적지를 돌아보고 여행도 함께 하며 한국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분들이 새로 오는 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매우 친절하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의 집이 10,5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저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허망하거나 외롭지 않았고 다만 환영 받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님의교회와 EM에게 감사합니다.

Korean people seem to have an inherent kindness and this is demonstrated remarkably here at the church. I am so grateful to everyone at the church, and to the people at the English Ministry especially, for making me feel welcome and a part of the church family. Because of EM I am having so much fun. They have really welcomed me and have helped me to experience life and culture in Korea. We have taken trips to historical areas around Seoul and even took one trip out of the city. They are really making my stay in Korea special...Thank you 주님의교회 and EM!

오늘은 임직자 선거일, 투표참여는 교회사랑입니다



선거자격을 본 교회 등록교인(2006년 5월 31일 이전 등록)으로 만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인이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전자식 개표방식에 따

라 OMR카드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장로, 집사, 권사투표를 OMR카드 1장으로 모두 하게 된다(투표용지사진 참조). 1차 투표결과 피택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부족수의 1.5배수를 다득표자순으로 후보자로 선정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과 투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소수만을 투표하지말고 선출인원수(10/40/40)만큼 기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섬길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투표시 유의사항

- 투표장소에 가기 전에 게시판과 함줄함울의 후보 공천자 명단을 참고하여 기표할 후보를 미리 확정하여 오면 정확하고 신속한 기표를 할 수 있다.
- 정신여고 본관 1층 투표소에 도착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인한다.
-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1장 받는다.

- 만일 선거인 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 교적카드를 작성한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기표소에서 장로는 10명까지, 집사와 권사는 각 40명까지 기표한다.
- 제한인원 이상 기표하면 무효처리된다.
-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OMR용지의 후보이름 옆의 동그라미(○)안에 검은 점(●)한다. 본인의 소지한 다른 필기구로는 기표할 수 없다.
- OMR용지에 물이 묻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므로, 손에 물기를 제거하고 기표한다.
- 다른 후보에 잘못 기표한 경우,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수정테이프(흰색)로 지운다. (X표기는 기표한 것으로 인식된다)
- 건강 상의 이유로 OMR카드에 기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투표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OMR용지는 절대로 접지 말고 투표함에 넣는다.

Women's ministry in EM

“영어사역팀의 여성사역팀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주님의교회 영어사역팀에 여성사역팀이 새롭게 시작했다. 아직은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어사역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 6월17일 약10명이 첫모임을 가졌고 초코렛을 나누어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차이와 서로 다른 환경을 넘어 친숙해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

도하였다. 여성사역팀은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께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It's a pleasure to write about a new women's ministry in the works in the English ministry. It's not official yet, but with God's blessing this can turn into something great for the women in the English ministry. They had the first fellowship meeting on Saturday the 17th of June gathering at a house and sharing chocolate fondue. With a group of about ten sisters of different ages and backgrounds, they got a little more familiar with each other and concluded the night with a great time of prayer. Hopefully with more future gatherings, they will focus on becoming greater women of God

방과후학교 플루트반

“강남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로”



지난 6월11일(주일) 2시30분, 주님의교회가 호스피스사역으로 봉사하고 있는 강남병원에서 방과후 학교 플루트반 학생들과 중고등부학생들의 특별한 사역이 있었다.

그 곳에서 이루어진 예배의 특송시간에 방과후학교 플루트반 학생들이 플루트 연주를 한 것이다. 이종은권사의 인도와 김재인목사의 설교로 진행된 예배에서 플루트반 학생들

은 찬송가 512장과 446장을 연주했다. 연주를 한 학생은 박지혜(고등부), 박가희(중등2부), 조성우(중등1부), 태민호(중등1부), 노정환(중등1부)등 5명과 플루트반 교사인 배은영이다.

또한 주님의교회 중·고등부학생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휠체어를 밀거나 부축해드리거나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

했고, 기도는 선교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한윤경, 이지화, 박호길 장로가 맡았다. 첫째날 예배 전에는 캄보디아와 관련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마지막 날 부흥회를 마치고 선교관련 담당자와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4층 대회의실에 모여 M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선교수련회의 특징은 1층 로비에 선교 관련 자료전시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선교의 역사, 선교활동자료, 의료선교의 나아갈 방향 등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여 성도들에게 선교와 관련된 불거리를 제공했다.



2006 선교부흥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06년 선교부흥회가 있었다. 부흥회의 강사는 K국의 치과 전문인 선교인으로 사역하고 있는 M선교사였다.

교육사역본부

교육위원회 모임

지난 6월 18일, 3층 소년부실에서 ‘교육사역본부 교육위원회’ 모임이 1시부터 있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각 교회학교의 행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있을 여름 사역인 학생 수련회와 비전트립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회학교는 7-8월 부서별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게되며 중고등부는 캄보디아 비전트립도 참여하게 된다.



하프타임강좌 인생은 아름다워

“생활 속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생활 속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하에 하프타임들이 침체된 정서생활 중에서 특히 쉽게 접해 보지 못했던 현대 미술에 대해서 설명했다. 생활 속의 아름다움은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신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여

준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으로 예술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 것을 소개 했다. 강의는 현대 추상작가들의 난해한 작품을 하나하나 예로 들어가며 2시간에 걸쳐 강의는 진행되었다. 뜨거운 관심과 사랑 속에 진행되었던 하프타임 강좌는 7월 4일 1화기를 종강하고 종강식을 갖는다.

“하프사역팀에서는 2학기 강의를 위하여 성도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강사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우동윤 목사에게 해주십시오.”

희망의 트랙, 교회학교

청년공동체 여름사역

“뜨거운 여름! 시원한 섬김에 동참하자.”



청년공동체에서는 뜨거운 여름을 시원한 섬김으로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의정부 동신교회 수련장에서 전체 수련회를, 8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농촌 봉사 활동을 가지며,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몽골, 캄보디아 1, 2팀으로 총 네개팀 60여명의 청년들이 해외단기선교를 떠나게 된다.

특히 농촌봉사 활동에 성도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농촌 봉사 활동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사 지일, 미용과 의료 사역, 어린이 공부방, 청소년 찬양집회,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잔치, 마을 보수 공사 등의

여러 활동들이 있다. 이 가운데 미용과 의료 사역을 섬겨주실 미용 기술이 있으신 분들과 한의사 분의 지원이 필요하며, 마을 잔치의 음식준비를 도와주실 분들의 손길도 필요하다. 또한 해외선교를 위한 많은 재정들이 필요한데 교회의 지원 없이 자비량으로 해마다 참여하는 것을 청년부가 정책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청년들과 함께 하는 뜨거운 여름 시원한 섬김에 함께 참여하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성도들의 손길을 기다린다. 청년공동체를 섬기는 윤은성 목사(017-566-1207)에게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1면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감당해야할 사명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으로...”

3부 예배시간에는 퇴임식이 진행되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그 임기를 다한 계학용, 김소일, 성백술 장로, 임현표 안수집사, 전은숙 권사를 축복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도들은 퇴임 임직자들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며 감사의 박수를 쳤다.

3부 예배 후에는 1층 로비에 모여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축하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임직식과 퇴임식과 함께 진행된 창립기념주일은 성년의 시기에 들어선 주님의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감당해야할 사명과 기도제목에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고난 받을 것을 두려



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험의 여행을 떠나는 주님의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다.

복지사역 본부 산행

“장마속의 맑은 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 6월 24일(토) 복지사역본부 가족들은 함께 산행을 했다.

장마철이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모처럼의 산행에 기쁨을 더 해주시려는 듯 맑은 날씨 속에서 즐거운 산행을 하였다. 우동윤 목사(복지선교담당 목사), 문창복 장로(복지사역 본부 위원장), 엄주정 장로(복

지지역본부 본부 위원)등 11명이 오전 7시에 교회에 모여 아침 식사 후 남한산성 산행을 시작 하였다.

무더위 속에서 4시간에 걸친 산행에서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무사히 산행을 마쳤고 자연과 벗하며 맑은 공기 속에서 서로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각기 다

른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끼리 정보도 나누며 깊은 친밀감 속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다.

산행 후 서로 헤어지는 아쉬움 속에서 후반기 복지선교 각 부서 간에 많은 책임을 다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복지 사역을 다하는 문창복 장로(본부장)의 기도 속에 산행을 마쳤다.

함께 봉사할 일꾼을 찾습니다

▶군선교부가 15사단 진중 세례식을 지원합니다.
7월 8일(토) 오전 10시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하여 점심식사, 예배, 세례식에 참여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_ 팀장 강진식 안수집사 011-9728-6579

▶복지 사역본부 소속자(자유인)사역팀에서는 소속자들의 갱생에 도움을 주고자 사회복지 상담에 경험이 있는 전문 상담원과 소속자 사역에 관심이 있는 교우님을 찾습니다.

문의 _ 팀장 정준호 집사 011-735-5400

비디오 촬영 봉사자 모집

교회기록보존위원회에서 비디오 촬영에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_ 김홍용안수집사 011-272-6643

함글함글

교회의 안팎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 교우들에게 전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확립하기는 본지의 목표를 수행할 기자

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주님의교회 등록교인입니다.

기사 보내는 곳
hamnews2006@naver.com